

# “어려운 이웃 찾아다니는게 일이죠”

## 본동복지관, 복지사각지대 이웃 67명 발굴한 나눔 실천가 사업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에는 이웃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는 나눔실천가가 있다. 지역주민 중심의 나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마을에 나눔을 더하다’ 사업 일환으로, 동작구민들로 이루어진 나눔실천가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달한다. 폭넓은 정보력과 활동력으로 이들은 현물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며 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현재 나눔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12명. 마을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통장이나 물론 사교성 좋고 발이 좀 넓다 싶은 이들이 가입돼 있다. 노인인, 시장, 미용실, 음식점 등 어딜 가든 동네주민들과 만났다하면 주위에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묻고 다니는 게 이들의 일상이 됐다. 그덕에 지난해 3월부터 한 해 동안 67명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줄 수 있었다. 대다수는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이다.

이렇게 발굴된 돌봄이웃들에게는 식료품, 생필품 전달부터 전기안전점검, 김장나눔, 도배, 방역서비스 등이 제공됐다. 이 중 김장나눔은 재료마련부터 전달까지 나눔실천가들의 자력으로 일구어진 온전한 나눔활동이었다. 복지관 옥상 텃밭에서 알타리무 등을 심고 가꾼 후 수확물로 김장을 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직접 복지현장에서 활동한 나눔실천가들은 하나 같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웃이 많아 놀랐다”고 말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웃들과 평소 교류할 기회가 없었으니 막상 내 주변에 사는 이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있

었는지 관심을 기울일 계기가 없었던 것이다. 참가자 중 한명은 “밥상에 흔히 오르는 김치조각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김장김치가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내 손으로 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 통장 등 주민 12명 실천가 활동 소외층 발굴 물품·정서지원 앞장 탄탄한 지역 공동체 조직 중

김성자(74)씨는 남은 인생을 뜻깊게 살고 싶어 나눔에 동참한 경우다. 그는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나와 이웃 모두 행복해질 수 있었다”며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겨우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업홍보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모금활동도 펼쳤다. “가족도 돌봐주지 않는 우리를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보람덕분에 남사스러운 생각도 잠시라고 했다.

나눔실천가들의 역할은 물품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민들이 직접 이웃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도움을 받는 이들 역시 이전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친밀함을 느낀다. 한 어르신은 “이웃이 직접 챙겨주는 선물을 받으니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라며 나눔실천가들의 손을



나눔실천가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하며 모금활동도 펼친다.

복잡했다. 이처럼 나눔실천가들은 인력수급문제도 복지 현장에서 차상위계층 등을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심분 담당해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발굴한 이들 중 몇몇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향후 복지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성수 복지사는 “지역 내 이웃에 대해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발굴해 교육 등의 활동지원을 통해 나눔이웃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은 물론 지역사회 연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인적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점이 많은 사업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한달에 한번 나눔실천가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동아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지원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체적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나눔실천가들과 돌봄이웃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나눔실천가들이 만든 나눔지도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나눔지도는 향후 후원처나 물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기관, 업체 등을 권역별로 표시한 일종의 후원처 개발리스트다. 나눔실천가들은 지난해 동작구 본동, 흑석동, 노량진동 일대를 탐방하며 복지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들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다. 복지관측은 이를 기반으로 후원처 발굴은 물론 음식점 등의 홍보게시판을 이용해 돌봄이웃 추천·나눔실천가 신규 모집 등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보자기 책가방 대신 에코백 선물해요

### 더프라이스, 개발도상국 어린이 위한 에코백 페인팅 캠페인 전개

더프라이스에서는 에코백 페인팅 캠페인을 실시한다. 변변한 가방 없이 학교를 다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에게 에코백을 선물하는 캠페인으로 후원자가 직접 색칠하고 꾸민 에코백이 현지 어린이들의 책가방이 될 예정이다.

가방은 미안마, 동티모르, 스리랑카, 인도, 말라위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에코백이란 유럽에서 시작된 환경 보호 운동의 하나로 비닐백, 종이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천가방을 이르는 말이다. 가볍게 들 수 있고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프라이스의 에코백 페인팅 캠페인은 후원자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재능기부인 만큼 가방 1개당 봉사시간 2시간이 인정

된다. 완성된 에코백을 더프라이스측에 보내어만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가방은 1개에 2만원이며 1인당 2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에코백 키트에는 밀그림 도안과 염색물감, 붓, 팔레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은 미술작가 장영선 씨의 작품과 한국민화 중 랜담으로 발송된다.

더프라이스 측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 학생들에게 좀 더 편안한 등하교길을 선물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이라며 “후원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현지 어린이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더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더프라이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http://thepromise.or.kr)

배현진 기자



##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10만평 지뢰 제거

### ‘지뢰없는 공생평화마을’ 사업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캄보디아 11개 마을에 지뢰를 제거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제거한 면적은 298,317㎡(90,400평)로 축구장 13개 크기에 해당된다. 지뢰 54개, 불발탄 270개, 폭발 잔류물 31,672개 등 총 31,996개의 전쟁잔류물을 제거해 3,044명의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

캄보디아 지뢰제거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 지난해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지뢰없는 공생평화마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하며 지뢰제거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13년에는 2개 마을에서 지뢰를 제거했지만 지난해에는 지뢰 피해 사고가 일어나 긴급 투입된 지역을 포함한 9개 마을에서 지뢰를 제거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뢰 위험

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지뢰없는 공생평화마을’ 사업은 월주 스님과 2012년 8월 만해평화대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카리씨와의 인연으로 시작했다. 지뢰 폭발의 위험성을 강조한 아카리씨의 설명에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에 다량의 지뢰가 매설된 지역과 피해자 인원을 등을 조사하고 제거 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1965~2000년까지 일어난 전쟁으로 전국에 약 천 만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뢰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생명까지도 빼앗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1년까지 지뢰 폭발로 인해 6만 3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약 2만 명이 사망했다.

지구촌공생회측은 올해 지뢰를 제거한 마을에 학교 및 우물 건립을 진행해 지역의 자립 운영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프레하비헤르주롬복마을에 입구에 설치된 위험한 지뢰가 제거되었음을 표시한 입간판이 설치되었다.



다례 배우며 봉사활동도 대치노인복지센터(센터장 손화정)에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례교육을 하는 ‘친구야, 모 두 다(茶) 사랑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센터내 어르신 재능기부팀 다담회가 주축이 돼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와 경로효친 사상까지 전달한다. 1월 한달간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학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례를 익힌 청소년들은 차에 어르신을 찾아뵙고 차를 대접하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예절도 익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 강북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서울지역 1위

불교계 장수복지법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4년 전국 장애인활동지원기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는 상위10%에 해당하며 서울지역에서는 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 15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서비스제공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개선 등이 평가항목이었다.

그결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자 만족도 역시 최상위로 평가받았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측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특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를 꾸준히 진행한 덕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http://www.dongsanbud.net)

## 2015년 동산불교대학 46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불교학과 [2월 7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대승불교와 정토 6. 밀교와 천수경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영스님, 주영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2년차	과목	7. 불교개론(이항경 1), 8. 불교문화와 포교, 9. 선불교 10. 근본불교(이항경 2) 11. 빈아심경 12. 유식불교
	교수진	최중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영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호귀교수, 활인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모주스님

- 선·명상학과(위빠사나) [3월 5일(목)]
- 불교다도학과 [3월 10일(화)]
- 불교미술학과 [3월 5일(목)]

■ 모집인원(불교학과) 120명(토요일반, 목요일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2015년 1월 1일부터

■ 문의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공정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수여됩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반도록 지원됩니다.

<b>모집과정</b>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b>모집학반</b>	• 출강반 • 통신반	
<b>입학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심이 돈독한 분</li> <li>•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li> <li>•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li> <li>•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li> <li>•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li> </ul>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